

## 제4장 新羅 眞興王之 統治哲學 研究(2)

A Study on the Ruling Philosophy of King Jinheung(眞興王) of Silla(新羅)

---

저자                    梁槿錫

(Authors)            Yang Keun-Suk

출처                    [민족사상 5\(4\)](#), 2011.12, 117-166 (50 pages)

(Source)              [KOREAN ASSOCIATION OF NATIONAL THOUGHT 5\(4\)](#), 2011.12, 117-166  
(50 pages)

발행처                [한국민족사상학회](#)

(Publisher)            Korean Association of Korean Though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77329>

APA Style             梁槿錫 (2011). 제4장 新羅 眞興王之 統治哲學 研究(2). 민족사상, 5(4), 117-166.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Accessed)           2021/10/10 10:1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제4장 新羅 眞興王의 統治哲學 研究(2)

梁 權 錫\*

### [국문요약]

新羅의 제 24대 眞興王(540-576)은 신라 992년의 역사에서 가장 偉大하고 英雄의인 君主였다고 할 수 있다. 왕의 在位 37년간 강력한 專制王權을 확립하고 國家行政과 統治制度를 整備하고 新設하여 三韓一統을 위한 國力を 強健하게 構築하였다. 眞興왕은 신라사회를 氏族社會의 遺制에서 벗어나서 반듯한 국가의 面貌를 日新하고, 中興시키기 위하여 수 많은 統治業績을 實行하였다. 眞興왕은 佛國土思想을 具現하고 國土擴張을 통한 雄大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淨佛國土思想과 國家鎮護思想을 통하여 三韓一統의 巨大한 野望을 이루고자 일생동안 盡力하였다. 이를 위하여 왕은 百高座法會와 八關薙會 등을 設行하였으며 ‘王卽佛’의 확고한 信念을 갖고 轉輪聖王이 되고자 하였다. 이웃한 伽倻, 高句麗, 百濟와 和戰兩面의 戰略을 구사하여 同盟과 戰爭을 통하여 國토를 확장하고 각 지역을 직접 巡幸하여 軍士와 百姓을 慰撫, 褒賞하고 巡狩碑를 建立하였다. 眞興왕은 靑少年教育和 國家的인 人材養成을 위하여 花郎道를 中興하였다. 이 花郎道를 통하여 뒷날 신라국가 인재의 대부분이 輩出되었다. 곧 後代의 三韓一統의 統一主導勢力으로 活躍하는 인물들이 모두 花郎徒 출신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30대 文武王 때 였지만 통일을 위한 眞興왕의 강력한 國力培養과 人材養成 등의 基盤構築이 없었다면 통일은 不可能 하였을 것이다. 곧 삼한일통을 위한 국가적인 모든 力量의 結集과 그 준비는 眞興왕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부>에 이어서 <2부>로 진행된 것으로, 眞興왕의 統治哲學과 그 業績을 王權의 確立과 骨品制度,

\* 東方大學院大學校

僧侶職責制度, 佛國土思想의 具現, 花郎道의 再創立과 中興, 國土擴張事業, 國史의 編纂, 音樂의 整理와 獎勵, 巡狩碑의 建立 등을 다루었다.

**主題語** : 眞興王 巡狩碑 佛國土思想 僧職制度 異斯夫 國史編纂 于勒  
花郎道 骨品制度 三韓一統

## I. 序言

신라의 제24대 眞興王(540-576)은 在位 기간 37년 동안 강력 한 專制王權을 확립하여 國家行政과 制度를 整備하여 三韓一統을 위한 國력을 강건하게 構築하였다. 先代인 23대 法興王(514-540) 때에 이루어진 兵部(國防部)의 設치(517), 律令의 頒布(520), 官吏의 公服制定과 位階의 확립(520), 佛敎의 公認(528), 國家 最高官職인 上大等 制도시행(531), 최초의 年號인 建元 制定施行(534) 등의 統治業績을 이어받아서 강한 國家를 經營하였다.

진흥왕은 統治哲學으로 佛敎思想을 土臺로 하여 正法國家思想과 國家鎮護思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많은 寺刹을 建立하고 百高座法會와 八關齋法會 등을 통하여 國民들에게 佛心을 弘布하여 ‘王卽佛’의 信念을 갖고 印度의 아쇼카왕(阿育王)과 같은 轉輪聖王의 통치를 그 理想으로 하였다.

眞興王은 그 자신의 이름을 沙彌 또는 僧侶(Saingha)를 뜻하는 ‘三麥’이라 하고 王子들에게는 銅輪, 金輪, 舍輪 등의 이름을 지

어 불렀다. 이는 신라 王室이 印度의 王族階層인 刹帝利種(Ksatriya)<sup>1)</sup>의 眞種과 같다는 것을 誇示하는 동시에 그 優越性을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흥왕의 이러한 결정은 嚴格한 身分社會에 있어서 最高支配階層인 王室을 血緣的으로 他 階層과 구별하고, 왕실을 불교로서 神聖化하여 骨品制上으로 差別化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骨品制度는 계층을 宗教的 權威로서 구별하는 것으로 固定化 되어 신라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佛敎經典에 보이는 刹帝利種의 眞種(純種)과 또한 왕실을 神聖한 血統 또는 神聖한 家族으로 보는 의식에서 왕족에는 ‘聖’자를 붙이며 聖骨로서 가장 중시하게 되고, 眞種이라는 뜻과 부처를 뜻하는 眞身에서 ‘眞’자를 따서 美號를 眞興太王이라고 한 것 같으며, 그 후에도 ‘眞’자를 붙인 왕이 나오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刹帝利種의 眞種 思想의 영향으로 25대 왕인 眞智王(金輪, 舍輪)과 그 뒤를 이어 26대 임금인 眞平王은 諱를 ‘白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釋迦牟尼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인 白淨王(Shuddhodana)에서 따온 것이고 王妃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을 그대로 따서 摩耶夫人(Mahamaya)<sup>3)</sup>이라고 하였다. 진평왕

1) 刹帝利 : 범어 Ksatriya의 音譯. 刹利라고도 약하여 부르기도 하며 田主라 번역하고 또 王種이라고도 한다. 인도에 있어서 四姓의 社會 계급 가운데 바라문족에 다음가는 王族, 貴族, 士族의 支配階級을 일컫는다. 軍事, 政治에 종사한다. 釋尊도 이 계급의 출신이었으며, 뒤에는 이 왕족계급이 婆羅門 계급 보다 앞서 제1계급으로 되기도 한다. 弘法院 編輯部(編), 『佛敎學大辭典』(서울: 弘法院, 1996). p.1520.

2) 眞字로 시작하는 王號는 25대 眞智王, 26대 眞平王, 28대 眞德女王, 51대 眞聖女王 등이 있다.

3) 摩耶夫人 : 정반왕의 아내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모. 李崇寧(監修), 『새國語大辭典』(서울: 韓國圖書出版中央會, 1996), p.367.

의 동생 ‘伯飯’과 ‘國飯’ 등도 淨飯王(白淨王)<sup>4)</sup>의 동생 白飯王(Shukodana)과 斛飯王(Draodana) 등에서 각각 따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진평왕의 뒤를 이은 27대 왕인 善德女王的 諱인 ‘德曼’과 그 뒤를 이은 28대 임금인 眞德女王的 諱인 ‘勝曼’도 모두 佛敎經典에서 취한 것으로, 특히 승만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曼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sup>5)</sup>의 女主人公인 ‘勝曼(Shrimala)’이란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러한 王室의 신성한 귀족의식이 ‘王卽佛’의 統治原理로 昇華되어 古代 專制君主權과 骨品制度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三國 중에서 신라 왕실이 印度의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受容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진흥왕은 국민의 和合과 團結을 圖謀해야 국력이 結集될 수 있다고 보고 支配層과 被支配層의 一致團結을 위해서는 上下의 信賴와 民生의 安定과 慰撫가 必須不可缺한 條件이라는 前提 아래 佛心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을 敎化시켰던 것이다.

진흥왕은 신라국가의 歷史性和 正統성을 定立하기 위하여

---

4) 淨飯王 : 중인도 가비라국의 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白淨王이라 고도 하며 구리성의 善覺王의 누이 摩訶摩耶를 妃로 맞아 悉達太子(일체성 취의 뜻)를 낳았으나 7일만에 마하마야왕비가 죽으매 그 동생 摩訶波闍波提를 王妃로 삼아 신달태자를 養育하게 하였는데 그가 커서 修行 成道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흥법원 편집부(편), 『불교학대사전』, p.1396.

5) 勝鬘經=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 1권. 劉宋의 구나발다라 번역. 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의 略稱. 사위국 바사닉왕의 딸로서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勝鬘夫人이 석존께 대하여 자기의 사상을 여쭙고, 부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을 내용으로 한 것. 一乘으로서 宗旨를 삼는 妙法蓮華經과 같은 것으로 묘법연화는 廣說이며 이 경은 略說이다. 범화에는 三會 및 여러 가지 權, 實이 있으나 이 경은 二死五住를 말한다. 흥법원 편집부(편), 『불교학대사전』, p.904.

伊滄 異斯夫의 奏請에 따라 大阿滄 居柒夫에게 『國史』를 編纂하게 하였으며(545), 年號를 開國(551), 太昌(568), 鴻濟(602) 등으로 바꾸었다.

또한 眞興왕은 伽倻의 遺民이었던 伽倻琴의 名人인 于勒과 그 弟子 尼文을 불러 演奏하게 하였으며(551), 階古, 法知, 萬德 3 사람에게 명하여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하고 그들에게서 가야금의 연주와 노래, 춤을 觀覽하였다(552). 이는 音樂을 獎勵, 整理하여 國民의 情緒를 純化하고 慰撫하는데 필요한 禮樂을 勸獎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眞興왕의 統治業績 중에서 가장 刮目할 偉業인 花郎道의 再創立과 中興은 靑少年 教育을 통하여 未來世代에 主役이 될 國家적인 人材를 養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신라의 대부분의 인재는 화랑도에서 배출되었던 것이다.

화랑도는 우리 固有의 ‘玄妙之道’에다가 外來 思想인 儒佛仙 3教를 접목, 融和하여 風流道, 風月道를 이루어 냄으로써 國家적으로 仙風, 國風의 氣風을 振作 시켰던 것이다. 훗날 신라가 三韓一統의 大聖業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화랑도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統一 主導勢力으로서의 역할을 아낌없이 發揮하였던 것이다.

眞興왕은 삼한일통의 國家적인 目標을 이루기 위하여 佛國土 思想에 입각하여 國土擴張 事業을 강력히 推進하였다. 接境을 맞대고 있던 高句麗와 百濟를 和戰兩面 戰略으로 北方地域을 개척하고 동시에 西南方地域의 開拓과 進出을 통하여 나라의 領域을 넓혀 갔던 것이다.

國土확장 事業을 통하여 확보한 영역에는 眞興왕이 직접 現場을 돌아보고 軍사들과 百姓들을 慰撫하고 褒賞하였으며, 巡狩碑(拓境

碑)를 건립하여 國境을 확정하고 統治의 哲學과 諸般事項을 기록하여 石碑를 세웠던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진흥왕의 순수비는 昌寧, 北漢山, 磨雲嶺, 黃草嶺 등의 4基가 남아있다.

이를 위하여 隣接한 百濟와 高句麗 및 中原의 세력들과의 外交的인 노력과 交流를 통하여 國際的인 眼目を 提高하고 아울러 將次 그들과 對立 抗爭할 수 있는 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진흥왕의 이러한 統治戰略과 목표는 무엇보다도 高구려와 百제를 아우르는 삼한일통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진흥왕은 강력한 專制王權을 확립하고 국가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의 정신적인 바탕으로 채택한 국가불교를 振興하기 위하여 僧職制度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統一主導勢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花郎道를 中興하여 靑少年 教育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보면 통일은 준비없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眼目を 지닌 最高統治者의 領導 아래 모든 국민이 融和로서 一致團結하여 盡忠報國, 殺身成仁하는 國家觀이 확고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거울로 삼아 오늘의 한국이 당면한 통일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준비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歷史的인 敎訓을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國際情勢와 周邊의 狀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처한 地政學的 環境을 고려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기술 등의 蓄積과 국민의 合意에 의한 共感帶形成, 즉 民心의 結集이 가장 중요한 要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라가 三韓一統의 大聖業을 이루는 과정이 약 1세기의 세월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오늘의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발표한 <1부>6)에 이어서 <2부>로 계획하여 진

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眞興王代의 僧職制度(僧官制)에 관하여 究明한다.
- 나. 진흥왕의 花郎道の 再創立과 中興에 관하여 구명한다.
- 다. 진흥왕의 佛國土思想의 具現을 알아 본다.
- 라. 진흥왕의 國土擴張 事業에 관하여 구명한다.
- 마. 진흥왕의 國史編纂과 音樂獎勵에 관하여 구명한다.
- 바. 진흥왕의 巡狩碑(拓境碑) 建立에 관하여 구명한다.

## II. 僧侶職責 制度

진흥왕은 그 統治基盤을 불교사상에 두고 불교를 獎勵하고 振興하기 위한 國家的인 施策의 하나로서 僧侶를 官職에 任用하는 僧職制度(僧官制)를 처음 施行하였다.

先代인 法興王(514-540) 15년(528)에 異次頓의 殉教를 계기로 하여 公認된 불교는 진흥왕시대로 접어들면서 왕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범 국민적으로 국가불교로 받아들이기 위한 불교 진흥시책이 가속화 되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불교와 敎團을 認證하고 保護, 管理하여 氏族社會의 正體性을 불교로 融攝시켜 불교가 신라의 國民精神 곧 國家觀, 국가 사회의 指導理念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 僧侶의 職責制度는 진흥왕 11년에 설치되어 12년에 整備하였다.

---

6) 梁槿錫, “新羅 眞興王의 統治哲學 研究(1),” 『민족사상』, 제5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pp.151-192.

진흥왕 11년에 大書省으로 安藏法師가 임명되고 少書省 2인을 두었다. 진흥왕 12년에는 고구려에서 歸化해 온 惠亮法師를 居柒夫가 薦擧하여 國統으로 임명하였다.<sup>7)</sup> 국통 아래의 職責인 都唯那娘은 1인으로서 寶良을 任命하였다.

이 중 都唯那娘은 尼僧(比丘尼)의 일을 管掌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州統과 群統을 두어 지방의 불교에 관한 일을 管掌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僧官	定員	僧侶	設置年代	備考
國統(寺主)	1	惠亮法師	眞興王 12년	三國史記
都唯那娘	1	阿尼	眞興王 12년	三國遺事
大都唯那	2	寶良法師	眞興王 12년 (후 眞德女王 元年 가1)	三國遺事 三國史記
大書省	2	安藏法師	眞興王 11년 (후 眞興王 元年 가1)	三國遺事 三國史記
少年書省 (少書省)	2 (2)	惠英, 梵如	元聖王 11년 (眞興王 11년)	三國史記 三國遺事
州統	9			三國史記
群統	18			三國史記

僧官制度的 施行 정비와 더불어 같은 해에 國統인 惠亮法師에 의해 최초의 ‘仁王百高座法會’가 열려서 國泰民安과 護國을 祈願하

7) 惠亮法師：高句麗의 僧侶. 고구려 陽原王 때 신라의 居柒夫의 영향으로 신라에 歸化. 眞興王으로부터 國統의 최고 벼슬을 받고 八關會와 仁王百高座會를 설치 하였다. 李弘植(編), 『國史大事典』(서울: 三榮出版社, 1984), p.1727.

였으며, 진흥왕 33년에는 戰死者들을 追慕하기 위한 ‘八關薙會’가 개최되어 불교가 大衆속으로 파고 들어 가 佛心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불교가 隆盛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僧職制度의 설치로 僧侶들의 地位가 向上되었으며 승려들이 國家의 政策遂行에도 必然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진흥왕의 隨駕人名列에도 法藏, 慧忍 등의 승려가 다른 일반관료들 보다 앞서 위에 기록된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國師, 王師制度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다.

僧職制度의 설치에 국왕이 政治와 宗教 兩權力을 掌握한 政教一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王法과 佛法을 同一視하여 부처의 神聖한 加被力을 王의 위력으로 代置하여 강력한 全제왕권을 형성하여 國政을 統治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진흥왕의 佛教 振興을 위한 施策은 그 목적을 國泰民安에 두고 추진되었다. 寺刹의 建立은 興輪寺(법흥왕 14년 527년에 착공하여 진흥왕 5년 544년에 완공), 皇龍寺, 祇園寺, 實際寺, 永興寺의 5寺刹이 있었다. 이 중 특히 전후 3차례에 걸쳐서 진흥왕 27년에 落成된 皇龍寺<sup>8)</sup>는 신라의 國력을 總動員하여 국가적으로 心血을 기울인 護國의 道場으로 신라 국가불교의 總本山으로서의 大伽藍이었다.

그 밖에 外寺로 많은 寺刹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흥왕 5년에 백성들이 出家하여 僧侶가 되는 것을 許諾하였다. 출가

---

8) 皇龍寺 : 경상북도 경주에 있던 절. 신라 眞興王 때 짓기 시작하여 善德女王 14년(645)에 완성됨. 신라 3寶 중 丈六尊像과 9層木塔의 2가지가 있어 더욱 유명하였으며, 신라 護國信仰의 중심이었음. 몽고군의 침입으로 燒失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음. 김민수 외 3인(편), 『국어대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1), p.3468.

한 승려들에게는 度牒을 발급하였는데 이 도첩은 僧尼의 身分을 국가가 認定 또는 保護, 保證해 준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佛舍利와 留學僧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진흥왕 10년에는 중국 梁나라에 留學을 갔던 覺德이 梁나라 武帝로부터 佛舍利를 받아와서, 왕이 百官들로 하여금 興輪寺 앞길에 나가서 이를 받들어 모셔 오도록 하였다.

진흥왕 26년에는 陳나라에서 僧 明觀과 함께 經論 1,700여권을 보내왔고, 왕 37년에도 安弘法師가 陳나라에서 불사리를 모시고 胡僧 毘摩羅 등 두 승려와 함께 귀국 하였다. 이 때 안홍은 『楞伽經』과 『勝鬘經』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佛像으로는 왕 35년에 鑄造하여 皇龍寺 金堂에 安置한 그 유명한 丈六尊像이 있다.

### III. 花郎道の 中興

신라 三國統一의 主導勢力은 화랑도라고 할 수 있다. 진흥왕이 화랑도를 再創設하여 중흥한 이래로 대부분의 국가적 인재가 화랑도에서 배출 되었다. 화랑도에 관해서는 발표된 수 많은 先行 研究資料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概略적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花郎이란 명칭과 화랑도에 관한 국가적 규모의 운동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되살리어 일으킨 것은 신라의 진흥왕이었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뒤를 이어 받아 우리민족 고유의 청소년 교육제도를 다시 中興시켰으며 국가발전의 기틀을 확립한 大英主 였다.

그러나 그 선대인 법흥왕대에 이미 청소년들을 모아서 국가적인 인재를 선발하려 했음을 『東國輿地勝覽』<sup>9)</sup>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법흥임금 元年(514)에 얼굴과 행실이 단정한 사내애들을 가려 뽑아서 風月主라 부르고, 착한 선비를 구하여 무리를 만들어 孝道, 忠誠, 信義를 獎勵하였다.

처음에 신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人材를 알 수 없음을 근심하여, 무리를 지어 모이고 떼를 지어 놀게하여 그들의 行誼를 본 뒤에 薦學해 登用하려고 하였다.

法興王 元年 選童男容儀端正者 號風月主 求善士爲徒衆 以礪孝悌忠信 初新羅君臣 忠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行儀然後 舉而用之<sup>10)</sup>

이 기록을 보면 화랑과 비슷한 무리들과 운동이 신라시대의 초창기부터 있어 오다가 법흥왕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운동의 무리들을 風月主라고 이름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랑제도가 국가적인 큰 규모로 조직화, 집단화 되기는 아무래도 법흥왕 다음대인 24대 진흥왕 때이다. 『三國史記』<sup>11)</sup>에 기록되

9) 『東國輿地勝覽』: 조선시대의 人文地理書. 55권 25책. 印本. 조선은 건국 후 통치상의 필요에서 지리지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世宗의 명에 따라 孟思誠, 申穉 등이 1432(세종 14)년 『新撰八道地理志』를 撰進하였다. 내용은 各道の 全圖와 沿革, 風俗, 廟社, 陵寢, 宮闕, 官府, 學校, 土産, 孝子, 烈女, 城郭, 山川, 樓亭, 寺址, 驛院, 橋梁, 明賢의 사적, 詩人의 題詠 등을 실었다. 李荇의 進進문, 徐居正의 序文, 金宗直의 跋文이 있다. 역대 지리지중 가장 종합적인 것으로서 정치, 제도, 향토사의 중요한 필수자료이다.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19卷, p.131 참조.

10)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一, 慶尙道 慶州府, ‘風俗, 風月主 花郎’.

11) 『三國史記』: 고려 仁宗 때 王命에 따라 金富軾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의 정치적 흥망, 변천을 주로 하여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의 역

어 전하는 화랑제도의 성립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년(576) 봄에 처음으로 源花를 만들었다. 처음에 君臣들이 인재를 알지 못하여 근심한 끝에 많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여 그들의 행실을 보아 가지고 이를 등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았는데 하나는 南毛라 하였고 하나는 俊貞이라 하였다. 그들은 그 무리를 300명이나 모았는데 두 여자는 그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게 되고, 준정은 남모를 자기집으로 誘引하여 놓고 독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그를 이끌어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나 사건이 발각되어 준정은 死刑되고 그 무리들은 실망하여 제대로 分散되고 말았다.

그 후에 다시 아름다운 남자들을 뽑아서 곱게 丹粧하고 화랑이라 이름하여 받들게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서로 道義를 鍊磨하고 혹은 歌樂을 즐기면서 산수를 찾아다니며 遊覽 하는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는 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게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뽑아 이를 朝廷에 추천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金大問의 『花郎世紀』<sup>12)</sup>에 말하기를, “어진 宰相

---

사서. 50권 1책. 印本. 1145(인종 23)년 간행. 김부식 등 11명이 편찬에 참여 하였으며, 그 체계는 중국 사마천의 『史記』를 따랐다. 신라를 가장 중심으로 다루고, 儒敎的 事大主義의 입장에서 편찬되어 귀중한 우리의 고대 사료들을 신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한국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는 一然의 『三國遺事』와 아울러 최고의 史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6권, pp.229-230 참조.

12) 『花郎世紀』: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의 학자 金大問이 지었다고 하

과 忠誠된 臣下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뛰어난 將帥와 勇敢한 軍士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 하였고, 崔致遠<sup>13)</sup>의 『鸞郎碑序文』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玄妙<sup>14)</sup>한 道가 있다. 이를 風流라 하는데

는 화랑의 내용과 역사를 기록한 책.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래에 부산에 거주하는 김경자씨가 집안에 소장되어 전해오던 화랑세기 筆寫本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화랑의 지도자를 風月主라 명칭하고, 제1세 풍월주인 魏花郎부터 제15세 풍월주인 金庾信을 끝으로 차례대로 그 주인공의 行績을 기술하였는데, 각 인물의 선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를 밝히고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을 기술 하였으며, 다음에 가서는 반드시 贊을 붙였다. 金大問(著). 李泰吉(譯), 『花郎世紀』(釜山: 民族文化, 1990) 참조.

- 13) 崔致遠 : 857-?(현안왕 1-?), 신라시대의 학자. 慶州 崔氏의 시조. 자는 孤雲, 海雲. 869년(경문왕 9) 13세로 당나라에 유학, 874년 과거에 급제, ‘선주표수현위(宣州漂水縣尉)가 되고 ‘承務郎’, ‘侍御史’, ‘內供奉’에 올라 ‘紫金魚袋’를 하사 받았다. 879년(헌강왕 5) ‘黃巢의亂’ 때는 고변의 從事官으로서 『討黃巢檄文』을 抄하여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885년 귀국, ‘侍讀 兼 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이 되었으나 문란한 국정을 통탄하고 外職을 자청, 大山 등지의 太守를 지냈다. 894년 ‘時務 10 여 조’를 상소, 阿浪이 되었다. 그 후 관직을 내놓고 난세를 비판, 각지를 유랑하다가 伽倻山 海印寺에서 여생을 마쳤다. 글씨를 잘 썼으며 『鸞郎碑 序文』은 신라시대의 花郎道를 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려 현종 때 ‘內史令’ 추증, 文廟에 配享, ‘文昌侯’에 追封 되었다. 조선시대에 泰仁 ‘武成書院’, 慶州의 ‘西岳書院’ 등에 從享 되었다. 글씨에 경주의 『崇福 寺碑』, 河東 雙溪寺의 『眞鑑禪師大空塔碑』, 聞慶 鳳巖寺의 『智證大師寂照塔碑』, 保寧 聖住寺의 『朗慧和尚白月보光塔碑』가 있고, 저서에 『桂苑筆耕』, 『중산복래집』, 『釋順應傳』이 있다.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6권, p.526.
- 14) 玄妙 : 중국의 聖人 ‘抱朴子’는, “ ‘玄’이라는 것은 자연의 시조 이면서 만수지대종이니 아주 극히 深奧한 것이다.”고 하였고, “고로 정미롭게 면면하여 深遠하기 때문에 ‘妙’라고 한다.”고 하였다. 만갈래로 서로 다른 유파들의 大宗이요, 大自然을 낳은 시조라고 한 ‘玄’과 심원하면서 면면하고 정미로우면서도 아주 극히 깊기 때문에 ‘妙’라고 한 것이 즉 ‘玄妙’인 것이다.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사상,” 梁權錫(編), 『韓國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仙史』<sup>15)</sup>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三敎<sup>16)</sup>를 包含한 것으로 모든 民衆과 接觸하여 이를 敎化하였다.

또한 그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을 다하니 이는 魯나라 司寇의 趣旨이며, 또한 모든 일을 꺼리낌없이 처리하고 말 아니하면서 일을 실행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의 宗旨였으며, 모든 惡한 일을 하지않고 모든 착한 행실만 信奉하여 행하는것은 竺乾太子의 敎化이다. 하였고, 唐나라 令狐澄의 『新羅國記』<sup>17)</sup>에 말하기를, “貴人의 子弟로 아름다운 사람을 가려뽑아서 分을 바르고 곱게 丹粧하여 화랑이라 이름하고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긴다.

三十七年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媚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強勸酒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紀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遠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

思想과 倫理』(서울: 螢雪出版社, 1990), p.161.

15) 『仙史』: 신라 진흥왕때 사람인 金居漆夫가 『三韓古記』, 『檀君古記』, 『海東古記』에서 뽑아 지었다고하는 화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나 지금은 전해오지 않음.

16) 三敎: 도교, 불교, 유교의 세 종교를 말한다.

17) 『新羅國記』: 중국의 唐 太曆中(신라 경덕왕 4년) 冊封使 歸崇敬의 一行으로 신라에 왔던 從事官 顧音이 신라의 화랑제도와 그 실체를 몸소 견문하고 저술한 책이라고 함. 梁權錫, 『韓民族과 花郎道 敎育思想에 관한 研究』(서울: 留學社, 1985), p.182.

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 唐令狐澄新羅國記曰 擇貴人子弟之美者 傳粉粧飾之 名曰花郎 國人皆尊事之也.<sup>18)</sup>

고 하였다. 또한 『三國遺事』<sup>19)</sup>에도 花郎制度的 成立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의 성은 金씨요, 이름은 三麥宗 혹은 深麥宗 이라고도 한다. 梁나라 大同 六年 庚申에 卽位 하였다. 왕은 伯父 法興王의 뜻을 思慕하여 마음껏 부처를 받들어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度牒을 주어 僧尼가 되게 하였다.

왕은 또한 天性이 溫雅하여 크게 神仙<sup>20)</sup>을 崇尚해서 娘子의 아름다운 자를 가리어 原花를 삼았다.<sup>21)</sup> 그것은 무리를 모아 인물

---

18) 『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7년.

19) 『三國遺事』 :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명승 普覺國師 一然(1206-1289)이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의 유사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 5권 2책. 印本. 편찬연대는 미상이나 1281-1283년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古朝鮮에 관한 기술과 檀君을 우리의 國祖로 받드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많은 전설, 설화가 수록되어 있고, 鄉歌 14수가 실려있어 古代文學史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일대 敘事詩라고 할 수 있다. 正史인 『三國史記』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民族史의 寶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6권, pp.231-232 참조.

20) 神仙 : 신라 고유의 國風인 源花, 花郎의 道를 仙에 비하는 데서 나온 筆法.

21) 원화제의 시초는 이 때가 아니라 훨씬 오랜 옛날에 속하였을 것이다. 아마 女性團長인 原花制가 男性團長인 花郎制로 交替되던 연대가 진흥왕 초기인 것을 잘못 그렇게 전한 것 같다. 李丙燾(저)·震檀學會(編), 『韓國史 : 古代篇』(서울: 乙酉文化社, 1959), p.599 참조.

을 選拔하고, 또 孝悌忠信으로서 이들을 가르키려 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大要 이었다.

이에 南毛娘과 姣<sup>22)</sup>(俊)貞娘의 두 原花를 選出하니 聚徒가 三四百人 이었다. 교정량은 남모랑을 嫉妬하여 酒宴을 베풀고 남모랑을 취토록 먹인 후 몰래 北川<sup>23)</sup>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 묻었다.

그(南毛) 무리가 남모랑의 간 곳을 몰라 슬피 울면서 헤어졌다. 그 陰謀를 아는 자가 있어 노래를 지어 거리의 小童들을 피어 부르게 하니, 그(南毛娘)의 무리들이 듣고 그 屍體를 北川 가운데서 찾고 이어 교정량을 죽였다.

이에 大王은 슈을 내리어 圓화를 폐하더니 그 후 여러 해에 또 생각하되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風月道’<sup>24)</sup>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하여 다시 영을 내리어 良家 남자의 德行있는 자를 뽑아 花娘(郎)이라고 改稱 하였다.

처음에 薛原郎을 받들어 國仙<sup>25)</sup>을 삼으니 이것이 ‘花郎國仙’의 始初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념)비를 溟州<sup>26)</sup>에 세우고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惡을 고쳐 善에 옮기게 하고, 위사람을 恭敬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히하니 ‘五常’<sup>27)</sup>, ‘六禮’<sup>28)</sup>와 ‘三師’<sup>29)</sup>, ‘六正’<sup>30)</sup>이

22) 『삼국사기』에는 俊貞으로 되어있다.

23) 北川 : 경주 북쪽의 개울을 말한다.

24) 風月道 : 화랑도.

25) 國仙 : 화랑의 우두머리. 화랑단장. 『삼국유사』에는 설원랑(薛原郎)을 최초의 국선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나, 근자에 공개된 『화랑세기』에는 제1세 ‘풍월주’를 ‘魏花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李丙燾(譯註), 『三國遺事』(서울: 廣曹出版社, 1975), pp.344-355. 金大問(著), 李泰吉(譯), 『花郎世紀』, p.12. p.15. pp.21-24 참조.

26) 溟州 : 현재 江陵의 옛 이름.

27) 五常 : 仁, 義, 禮, 智, 信.

널리 왕의 시대에 행하여 졌다.

第二十四代眞興王 姓金氏 名三麥宗 一作作深麥宗 以梁大同六年庚申卽位 慕伯父法興之志 一心奉佛 廣興佛寺 度人爲僧尼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 乃取南毛娘 姣(俊)貞娘兩花 聚徒三四百人 姣貞者嫉妬毛娘 多置酒飲毛娘 至醉潛去北川中 擧石埋殺之 其徒罔知去處 悲泣而散 有人知其謀者 作歌誘街巷小童 唱於街 其徒聞之 尋得其屍於北川中 乃殺姣貞娘 於是大王下令 廢原花 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 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改爲花娘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 故堅碑於溟州 自此使人尙惡更善 上敬下順 五常六禮 三師六正 廣行於代.<sup>31)</sup>

이상의 『동국여지승람』과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의 몇가지를 알 수가 있다.

첫째로, 화랑과 비슷한 무리들과 운동이 신라시대의 초창기부터 있어 오다가 법흥왕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운동의 무리들을 ‘風月主’라고 이름을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진흥왕대에 와서 인재를 가려쓰기 위하여 소년, 소녀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여 그 중에서 두 소녀를 뽑아 원화로 삼았으나, 두 소녀간에 서로 질투가 일어나 한 소녀를 죽임으로서 그 무리들은 解散되고 原花制度를 폐지 하였다.

세째로, 그 뒤에 良家 출신의 美少年을 뽑아서 곱게 丹粧하

28) 六禮 : 선비가 갖추어야 하는 여섯가지 필수과목을 말한다. 곧 禮, 樂, 射, 御, 書, 數.

29) 三師 : 太師, 太傅, 太保.

30) 六正 : 賢佐, 忠臣, 良將, 勇卒, 明師, 德友. 또는 나라에 이로운 여섯 신하. 곧 聖臣, 良臣, 忠臣, 智臣, 貞臣, 直臣.

31)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 彌勒仙花.

여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들게 하였다.

네째로, 최초의 花郎國仙으로 薛原郎을 받들어 화랑집단의 지도자로 삼았다.

다섯째로, 화랑집단은 서로 道義를 鍊磨하고,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山水를 찾아 즐겁게 노닐면서 人格陶冶와 身體鍛鍊을 겸한 知, 德, 體의 綜合的인 교육과 訓練을 받음으로써 뒷날 국가적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여섯째로, 화랑교육의 정신적 배경은 우리 민족의 固有한 風流徒의 바탕위에 外來宗教인 道教, 佛教, 儒敎思想을 調和롭게 受容하였다.

일곱째로, 화랑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社會氣風이 善良해지고 禮節이 확립되었으며, 五常, 六禮와 三師, 六正이 널리 퍼져 國民精神이 확립되었다.<sup>32)</sup>

화랑도의 生活樣式이나 敎育課程을 보면 知的인 면보다 活動的인 것을 주로 하였다. 주로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군사적, 훈련을 교육면에서 강조 하였다. 그러므로 화랑과 그 郎徒들은 이러한 생활과정을 통하여 人格敎育이나 人間關係의 기초를 닦았다. 화랑도의 生活敎育課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첫째는, 武術이다. 상세한 문헌과 자료가 전해오지 않아서 그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화랑집단이 일종의 軍事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칼쓰기, 창쓰기, 활쓰기, 말타기, 달음박질, 팔매질, 씨름, 격구, 태권, 봉술, 수영, 줄다리기 등의 鍊武를 組織的으로 훈련하였을 것이다.

---

32) 梁權錫, “花郎道の 敎育思想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6輯(釜山: 盛智工業專門大學, 1984), pp.11-12.

33) 孫仁鈇, 『韓國人과 敎育思想』, 敎壇叢書. 1(서울: 敎壇社, 1969), pp.30-35.

中世 西洋의 騎士道나 日本의 武士道에서도 무술은 必須的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

둘째는, 道徳과 理性陶冶이다.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라고 한 것과 같이 신라의 화랑도들은 서로 道義와 理性을 연마하는 가운데, 萬人이 欽慕하는 인격의 소유자를 목표로 한 것이니, 理性陶冶에 화랑의 교육적, 도덕적 가치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곧 화랑도 교육은 이성을 통해서 덕을 쌓는 道徳의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째는, 情緒陶冶이다. “徒衆雲集 … 或相悅以歌樂” 이라고 하여 화랑들은 詩歌와 音樂을 즐겼다. 歌舞遊娛로써 춤추고 노래하는 가운데 화랑단체의 의식이 각자의 마음속에 뿌리박게 될 때, 전체로서의 마음의 조화를 얻게 되어 共同的 連帶感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정의 歌舞는 “集會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共同的 財産이며, 組員으로서의 特典은 이것을 授受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sup>34)</sup>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理性陶冶로서의 歌舞는 화랑단원 및 신라인의 共同的, 心理的 조화와 情緒的, 內面的 規律과 義氣를 鼓舞시켜, ‘盡忠報國’, ‘勇壯義烈’의 정신과 더불어 신라사회의 音樂과 文學性을 더욱 드높였을 것이다. 곧 ‘風流의 道’를 더욱 멋지게 살찌웠을 것이다.

넷째는, 心身鍛鍊과 直視陶冶이다. 徒衆雲集 · · · 遊娛山水 無遠不至” 라고 하여 화랑도들이 산수와 自然을 찾아 노니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고 한다.

34)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朝鮮古代研究』, 第1部(東京: 三省堂, 1943), p.86.

화랑집단이 교육적, 도덕적, 종교적, 군사적인 중대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한 산수를 유람하면서 심신을 단련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려 忠肅王代의 文人인 李穀의 『東遊記』에 보면, 화랑의 遊娛地로서 叢石亭의 ‘四仙峰’, ‘金蘭窟’, 三日浦의 ‘石龕’, 과 ‘四仙亭’, 그리고 ‘永郎湖’, ‘鏡浦臺’, ‘寒松亭’, ‘越松亭’ 등지가 유명하다. 이 지방은 金剛山, 그 중에서도 海金剛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海邊一帶이다.

이와 같이 화랑집단이 주로 강원도 일대를 유오한 것은, 이 지방이 自然과 風光이 秀麗하고 고유의 聖地 혹은 觀光地였기 때문이다. 현실과 자연을 중시하던 신라의 화랑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肉體에 아름다운 精神’을 길렀다. 이는 곧 ‘화랑도의 멋’이며 ‘신라인의 풍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랑들이 이 지방을 유오하고 답사한 것은 강원도 북부에 있는 고구려와 靺鞨과의 接境地帶로서 軍事上의 重要性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地理調査와 地形을 把握하고, 尙武的 훈련과 直視教育 및 心身鍛鍊을 함으로써, 教養과 見聞을 넓히고 국토에 대한 愛着心 - 조국에 대한 사랑 - 을 고취 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여행은 인격, 풍속, 무술, 신체, 지리 등을 동시에 學習하며, 共同生活을 통하여 인물의 善惡과 長短點을 찾아내어 인재 등용의 기회로 삼자는 화랑도 교육의 목적과 일치 된다. 화랑도 교육은 신라의 人才養成과 人才登用의 제도로 시작 하였다. 여기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곧 護國의 支柱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制度나 思想이 한 국가나 민족의 완전한 理念으로 體系的 定立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다소의 施行錯誤와 어려운 難關을 克服해야 한다. 또한 전 構成員의 一致團結된 이념과 和合 그리고

結束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화랑들에게도 國家觀과 民族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삶  
의 指標와 이념이 의식속에 內面化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  
념이 생활화 될 때 까지 화랑들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화랑집단이나 그 개인이 당면한 인생의 고비에는 이루 形言할  
수 없는 피나는 通過儀禮가 시행되고, 그 儀禮 마다에는 苦難의  
試鍊이 克服 됨으로써 ‘玄妙之道’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화랑집회는 歌樂遊娛라는 敎養의 의례를 겪어야만 하고, 국가  
유사시에는 군사적 訓練儀禮를 통과해야 하고, 忠孝의 교육을 이  
수하기 위해서는 入校의 의례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知·德·體의 의례-생활교육과정-를 통과한 청년만이 화랑  
이 되어 신라인들의 羨望과 欽慕의 대상이 되고 국가적 인재가 되  
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례의 흔적을 實記에서 정확히 考證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으나, 화랑에 관한 說話나 전해오는 기록을 통하여 얼마든지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국가적 목적에 비추어본 화랑도는<sup>36)</sup>  
다음과 같다.

첫째로, 씩씩한 중견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國土  
防衛와 國威宣揚에 총동원 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로, 국민의 尙武的인 氣風을 항시 振作하여 士氣를 昂  
揚하는 동시에 民族統一의 大課業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

35) 金戊祚, “花郎說話攷,” 『韓國神話의 原型』(서울: 正音文化社, 1988),  
p.208 참조.

36) 李瑄根, 『花郎道 研究』(서울: 東國文化社, 1954), p.12 ; 李瑄根, 『  
花郎道』, 嶺大敎養文庫. 1(大邱: 螢雪出版社, 1971), p.21.

세째로, 祖國 앞에 個人의 利得을 容認하지않고, 組織과 規律을 통하여 언제나 ‘큰 나(大我: 국가와 민족)’에 犧牲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하고자 하였다.

곧 화랑도 교육은 治人教育으로서 賢佐忠臣을 양성하고, 軍事教育으로서는 良將과 勇士를 育成하며, 信義와 道義 및 孝悌와 忠誠 그리고 勇敢한 人間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上古 三韓時代로 부터 脈을 繼承해온 화랑도는 신라의 三國統一을 頂點으로 해서 점차 衰退의 길로 접어들어 끝내는 신라국가가 막을 내리고 고려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 IV. 佛國土思想의 具現

진흥왕의 國土觀은 正法으로 국토를 다스려 佛國土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다. 正法の 理想的인 統治者인 轉輪聖王이 武力을 쓰지 않고 德治로써 天下를 統一한 것처럼 分裂된 국토를 통일하여 國土完成을 하려는 것이었다. 眞興왕의 이러한 國土觀은 다음의 史料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1) 『玉龍集』과 『慈藏傳』 및 여러 사람이 기록한 傳記 등에는 다 이르되 신라의 月城 東便의 龍宮 南쪽에 迦葉佛의 宴坐石이 있었다. 그곳은 前佛時代의 伽藍 터이니 지금 皇龍寺 터는 眞興王 7處伽藍의 하나라고 하였다.<sup>37)</sup>

2) 新羅 제24대 眞興王 卽位 14년 癸酉 2월에 . . . 皇龍

37) 『三國遺事』, 3, 塔像 4, 迦葉佛宴坐石.

寺를 완성한지 얼마 아니하여 … 西天竺의 阿育王(아쇼카왕)이 黃鐵 5萬 7千斤과 黃金 3萬斤을 모아서 … 장차 釋迦 三尊像을 鑄造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고 祝願하기를 “因緣있는 국토에 가서 丈六尊像을 이루어라.” 하고 一佛과 二菩薩像의 模型까지 같이 실려있었다. … (진흥)왕이 使者를 시켜 그 고을 城 東便의 높고 깨끗한 땅을 골라서 東竺寺를 세우고 그 三尊佛像을 安置 하였다. 金鐵을 서울로 실어 와서 大建 六年 甲午(574) 三月에 장육존상을 단번에 鑄造하여 완성하였다.<sup>38)</sup>

이상의 사료 1)의 有迦葉佛宴坐石, 2)의 有緣國土(인연있는 국토) 등의 기사를 보면 먼저 진흥왕은 신라 국토를 불교의 固有한 有緣地로 理想化, 聖域化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2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신라가 과거로부터 불교와 깊은 因緣이 있어서 그 榮華를 보던 故土이니 불교는 결코 외래의 異宗教가 아니라는 定義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불교에 대하여 拒否感 없이 親密感을 갖게 되고 寺刹의 建立과 佛敎의 弘布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迦葉佛宴坐石』에 관한 『三國遺事』, 3, 塔像 4의 기록을 보면,

『玉龍集』과 『慈藏傳』 및 여러 사람의 傳記에는 다 같이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신라 月城 동쪽, 龍宮의 남쪽에는 迦葉佛<sup>39)</sup>의

38) 『三國遺事』, 3, 塔像 4, 皇龍寺丈六.

39) 迦葉佛 : 범어 Kasvapa. 음광(飲光)이라는 뜻. 과거 7佛 중의 하나로 인수(人壽) 2만세 때 나신 부처님. 종족의 성(種姓)은 바라문, 성(姓)은 가섭, 아버지는 범덕(梵德), 어머니는 재주(財主), 아들은 집군(集軍), 파비왕의 서울 바라나에서 출생하여, 니구를 나무 아래서 正覺을 이루고 1회의 說法으로 제자 2만인을 제도 했다고 함. 宴坐石은 坐禪하던 바위를 말한다.

宴坐石이 있다. 이곳은 바로 前佛 때에 절을 지었던 터이고, 지금의 皇龍寺 자리이니, 곧 7處伽藍 중의 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國史를 살펴보면, 진흥왕 즉위 14년 開國 3년 癸酉(553) 2월, 월성 동쪽에 新宮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黃龍이 나타났으므로 왕은 이것을 의아해 하여 皇龍寺라고 고쳤다. 가섭불의 宴坐石은 佛殿後面에 있었다. 일찍이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돌의 높이는 5, 6척이나 되었는데 그 둘레는 겨우 세 발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뚝 서 있고 그 위는 평평했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이후 두 번이나 火災를 겪었으므로 돌이 터져서 벌어졌는데, 절의 승려가 여기에 쇠를 붙여서 보호하였다.

여기에 기려 글을 짓는다.

불교가 침체함이 얼마인지 기억할 수 없는데  
오직 宴坐石만이 그대로 남아있네  
桑田이 변해 몇 번이나 蒼海가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우뚝한 채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네.

이윽고 西山大兵<sup>40)</sup> 이후에 佛殿과 塔은 모두 兵火로 불 타 버렸다. 그래서 이 돌도 역시 흠에 파묻혀서 겨우 地面과 같게 평평해진 것이다.

『阿含經』을 보면, 가섭불은 바로 賢劫<sup>41)</sup>의 세 번째 부처다.

40) 西山大兵 : 고려 고종 때 있었던 몽고의 대병란을 말한다. 일연(저). 김봉두(편역), 『삼국유사』, p.296.

41) 賢劫 : 범어 Bhadra-kalpa. 賢時分, 善時分이라 역한다. 3겁 중의 하나. 세계는 인수 8만 4천 세 때부터 백년을 지낼 때 마다 1세씩을

그는 사람의 나이로 2만 세 때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 여기에 의거해서 增減法으로 계산하면 언제나 成劫<sup>42)</sup>의 시초에는 모두 無量壽를 누렸다가 점차 減少하여 8만 세에 이르면 그때가 住劫<sup>43)</sup>의 시초가 된다.

이 때부터 또 백 년마다 1세씩 감하여 10세가 되면 1감(減)이 된다. 또 增加하여 사람의 나이 8만 세가 되면 1증(增)이 된다. 이렇게 해서 20번 감하고 20번 더하면 1주겁이 된다. 이 한 주겁 동안에 1천의 부처가 나타나는데, 지금 本師인 釋迦佛은 네 번째의 부처가 된다.

네 부처는 모두 제9감 중에 나타나게 된다. 釋迦世尊이 1백 세의 수를 누린 때로부터 迦葉佛이 2만 세를 누릴 때까지는 이미 2백만여 세가 된다. 만일 현겁 초의 제1존인 拘留孫佛<sup>44)</sup> 시대까지 이르면 또 몇 만세가 된다. 拘留孫佛 때로부터

---

감하여 인수 10세에 이르고, 여기에 다시 백 년마다 1세씩을 더하여 인수 8만 4천세에 이르며 이렇게 1증 1감 하기를 20회 반복하는 동안 세계가 성립되고(成), 다음 20회 증감하는 동안 머물러 있고(住), 다음 20회 증감하는 동안에 무너지고(壞), 다음 20회 증감하는 동안은 텅 비어 있다(空), 이렇게 세계는 성,주,괴,공을 되풀이 해 이 4期를 大劫이라 한다. 과거의 대겁을 莊嚴劫, 현재의 대겁을 賢劫, 미래의 대겁을 星宿劫, 현겁의 주겁 때에는 拘留孫佛, 구나함도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의 1천 부처님이 출현하여 衆生을 救世하는 시기라 한다.

42) 成劫 : 4겁의 하나. 세계가 성립하는 동안의 20중겁 동안, 세계가 壞滅한 후 20中劫의 空無한 기간을 지내고 다음에 중생의 業增上力에 의해서 미풍을 일으켜 風輪이 되고, 그 위에 水輪이 생기고, 또 그 위에 金輪이 생기고, 거기에 須彌山, 七金山, 四大洲가 성립되고, 다음에 夜摩天 등의 여러 天處를 이루는 것을 말함.

43) 住劫 : 4겁의 하나. 세계가 성립되었다가 파괴되어 공으로 돌아가는 동안의 오랜 시간을 넷으로 나눈 것의 하나(20중겁).

44) 拘留孫佛 : 과거 7불 중의 하나. 姓은 迦葉. 아버지는 禮得, 어머니

위로 올라가 겹초<sup>45)</sup>의 무량수를 누리던 때까지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釋迦世尊으로부터 아래로 지금의 至元<sup>46)</sup> 18년 辛巳(1281)까지가 이미 2,230년이 되니 구류손불로부터 가섭불 때를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몇 만 년이나 된다.

본조(本朝: 고려)의 선비인 吳世文<sup>47)</sup>이 지은 『歷代歌』에 의하면 大金 貞祐<sup>48)</sup> 7년 己卯(1219)에서 거슬러 셈하여 4만 9천 6백여 세에 이르면 바로 盤古氏<sup>49)</sup>가 天地를 開闢한 戊寅년이 된다 하였다.

또 延禧宮 錄事인 金希寧이 지은 『大一曆法』에 의하면, 개벽한 上元<sup>50)</sup> 甲子로부터 元豐<sup>51)</sup> 갑자에 이르기까지는 193만 7,641 세라고 했다. 또 『纂古圖』<sup>52)</sup>에서는 천지개벽한 때부터 獲麟(기린을 잡음, 기원전 477)<sup>53)</sup>에 이르기까지가 276만 세라 했다.

---

는 善技, 인수 4만 세 때에 安和城에서 나서 尸利樹 아래서 성불. 제 1회 설법에서 4만 명의 比丘를 教化시켰다고 함.

45) 劫初 :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46) 至元 : 元나라 世祖의 年號(1260-1294).

47) 吳世文 : 고려시대 高敞縣 사람으로 유명한 儒學者.

48) 貞祐 : 金나라 宣宗의 年號(1213-1223).

49) 盤古氏 : 중국에서 天地가 開闢할 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전하는 帝王.

50) 上元 : 術數家가 60갑자를 9宮에 分配할 때 반드시 180년이면 근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1 갑자의 60년을 上元, 다음의 60년을 中元, 다음을 下元이라 했다.

51) 元豐 : 宋나라 神宗의 年號(1067-1085).

52) 纂古圖 : 중국의 역사책.

53) 獲麟 : 중국 春秋時代 魯나라 哀公 14년 봄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麒麟을 사로잡은 때를 말함. 일연(저).김봉두(편역), pp.294-299 각주 참조.

여러 경전을 보면 또 迦葉佛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이 宴坐石의 나이가 된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겹초의 천지가 개벽한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어린애가 된다. 이런 三家의 설이 오히려 이 어린 돌의 나이에도 미치지 못하니, 그들이 천지개벽의 설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 했던 것이다.<sup>54)</sup>라고 記述하고 있어 신라가 오랜 세월 이전부터 世世生生으로 불교와 깊은 因緣을 가졌던 땅(국토)인 것을 確然하게 들어내고 있다. 곧 과거불시대부터 신라 땅에는 이미 佛國土 有緣說이 있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라인이 外來文化를 受容하는 태도이다. 신라사회는 극히 開放的이며, 外來文化를 受容하여 主體的으로 融和하여 新羅化하는 姿勢라고 할 수 있다. 이 有緣國土說로서 신라의 國土觀은 그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료 2)의 印度의 阿育王이 불상 鑄造에 失敗하여 有緣國土인 신라에 재료(황철, 황금)를 실어 보내어 진흥왕이 이를 받아 丈六尊像을 鑄造하였다는 것으로, 신라를 佛國土로 聖域化하고, 正法의 왕으로 尊敬하는 阿育王을 신라 국토에 有緣하게 하여 그의 治積을 본 받아서 國土完成 事業을 추진 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轉輪聖王인 아쇼카왕은 正法에 기반한 政治로서 인도에 統一國家의 기초를 굳게 하고, 佛典수집과 公益施設을 세우고 종교간의 親睦을 圖謀하였으며 佛蹟을 巡幸하고 石柱碑를 세움으로서 佛敎史에 큰 功德과 業績을 세웠던 것이다.<sup>55)</sup>

54) 일연(저). 김봉두(편역), 『삼국유사』, pp.294-298. 일연(저)·이가원, 허경진(옮김), 『삼국유사』(서울: 한길사, 2006), pp.249-251 참조.

55) 『三國遺事』, 3, 塔像 4. 皇龍寺丈六.

진홍왕의 이러한 국토관은 當代의 국토는 不完全한 것이며 三國을 統一함으로서 국토가 완성(불국토)된다는 그의 信念과 統治思想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 方策은 轉輪聖王처럼 武力을 쓰지 않고 慈愛로운 德政으로 佛國土完成을 실현 하자는 것이었다. 진홍왕이 척경을 巡幸하면서 세운 巡狩碑文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음은 그가 그 理想의 實踐者임을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홍왕의 국토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未來世에 불국토에 出現하여 淸淨한 理想鄉(불국정토)을 顯現한다는 彌勒思想이다. 그는 『彌勒下生經』을 믿어 그 理想인 국토의 지면이 평평하며, 시기가 화적하고 果樹는 茂盛해지며, 국민에게는 病患이 없고 惡한 사람과 추한 자가 없으며 淫, 怒의 癡心이 稀薄해지면 여러 종류의 珍寶가 많아 이로써 佛國土(極樂淨土)를 만들려고 노력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花郎道와 彌勒思想의<sup>56)</sup> 信仰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국토의 守護者로서 內憂外患을 막고 국토를 守護하며 국민들은 八關戒律을 지켜 국토완성에 이바지 하였다. 이것은 八關法會와 百高座法會 등에서 그 사실을 찾을 수가 있다.

## V. 國土擴張 事業

진홍왕은 正法國家의 理想에 따라 國土完成(佛國土建設, 天下統一)을 하고자 國土의 擴張에 盡力 하였다. 진홍왕 재위 37년간은

---

56)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60. 주 12) 참조.

對外進出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는 內憂外患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백제는 失地回復을 위해 고구려와 자주 衝突하고 있을 때 였다.

진흥왕은 이 틈을 타서 北方進出과 伽倻를 經略하여 國土擴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흥왕은 즉위 이듬해(541)에 兵部令(국방부장관)에 異斯夫를 임명하여 內外兵馬事를 맡김으로서 국토 확장을 위한 征服事業이 本格化 될 수 있었다.

### 1. 北方開拓과 進出

신라의 북방진출은 前後 6년(548-554)에 걸친 큰 戰鬥을 거쳐 京畿, 江原, 咸鏡道에 이르는 큰 領土를 차지하였다. 진흥왕의 첫 전투는 왕 9년(548) 2월에 고구려가 東濊人과 더불어 백제의 獨山城(지금의 忠州)을 칠 때 백제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옴으로써 왕은 羅濟同盟의 盟約에 따라 將軍 朱瑯과 強兵 3,000을 보내 고구려군을 크게 擊退하였다. 이 싸움으로 領土의 野心을 갖게 되어 北方進出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 뒤 신라는 北方進出에 유리한 여건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고구려가 內紛이 심화되어 南方政策을 後退치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고구려 국내 정세를 『日本書紀』, 19. 欽明紀 7년(546)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해에 高句麗에서 大亂이 일어났는데 무릇 싸워 죽은 자가 2,000여 명이나 되었다.(百濟本紀에 말하기를 고구려는 正月 丙午에 中夫人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나이가 8세 였다. 拍王(安原王인 듯 한데 『三國史記』에는 寶延이라 하였다)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다. 正夫人은 아들이 없었고 中夫

人이世子를 낳았는데 그 丈人(舅)은 鹿群이었다. 小夫人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丈人(舅)은 細君이다. 拍王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세군과 녹군은 각기 그 딸(夫人)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細君측의 희생자가 2,000여 명이나 된 것이다.

라고 內紛 鬪爭의 政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葛藤은 三國史記, 44, 居柒夫傳에서 惠亮法師가, “지금 우리나라는 政亂이 일어나 滅亡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居柒夫에게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와의 道薩城(天安?), 金峴城(鎭川) 爭奪戰으로 크게 지쳐 있었다. 이 틈을 타서 진흥왕은 伊滄 異斯夫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백제, 고구려군을 쳐서 550년에 두 성을 빼앗고 성을 增築하여 군사 1,000명을 배치하고 방어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57)</sup> 道薩城(본래 고구려의 영토), 金峴城(백제 영토)은 軍事的인 要衝地로서 신라는 이를 빼앗음으로서 북방 진출의 橋頭堡를 確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어서 진흥왕은 한강유역 攻略 작전을 시작하였다. 551년에 백제 聖王과 同盟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攻擊하였는데, 이 전투에는 居柒夫와 大角滄 仇珍, 角滄 比台, 雜滄 耽知, 雜滄 非西, 波珍滄 如夫, 波珍滄 西力夫, 大阿滄 比次夫, 阿滄 未珍夫 등 8將軍이 참가하였는데 『三國史記』, 권44, 居柒夫傳에 보면,

百濟人들이 먼저 平壤을 攻破하니 거칠부 등은 그 승리한 틈을 타서 竹嶺 이북 高峴(지금의 鐵嶺)이내의 10郡을 취하였다. 고 戰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羅濟同盟軍이 고구려를 攻

57) 李鍾旭, 『新羅의 歷史』, 1권(서울: 김영사, 2002), p.175.

擊하되 백제가 한강하류 지역을 먼저 占領하자 그 틈을 타서 신라도 漢江 上流地域의 10군을 占領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2년후(553) 신라는 공격 목표를 고구려에서 백제로 바꾸어, 백제가 收復한 한강하류지역 곧 南北漢城의 땅까지 빼앗아 漢城(廣州古邑, 554)을 중심으로 新州를 설치하고 阿漚 金武力(가야왕 金仇衡의 아들)을 軍主로 삼았다. 그리하여 羅濟共同作戰에 의하여 얻어진 戰果는 신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獨占되고 만 것이다.

신라의 한강유역 占領은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기름진 領土를 獲得한 이외에 西海를 통하여 중국과의 交流를 활발히 하게 되었고,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 할 수 있었으며, 唐나라의 군사력을 끌어내어 고구려와 백제를 멀하고 三國統一의 堅固한 基盤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이 漢江地域을 奪還하여는 고구려의 끊임없는 試圖가 있었으나 신라는 이 지역에 北漢山州를 설치하고 軍團을 배치하여 대처함으로써 고구려의 南進策略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유명한 고구려 平原王(559-590)의 사위이면서 平岡公主의 남편인 濫達將軍이 한강유역 阿且城 전투에서 戰死한 것은 이 무렵(고구려 陽原王 때)의 일로 보여진다.

백제는 475년에 한강유역의 땅을 고구려에 빼겼다가 약 75년 만에 收復 하였으나 2년만에 다시 신라에 빼긴 것이다. 이에 백제의 聖王은 怒氣가 衝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백제의 성왕은 553년 한강유역의 영토를 빼앗긴지 3개월만에 그의 딸을 眞興王의 小妃로 바쳐야 하는 受侮도 겪게 되었다. 이 敗北와 屈辱으로 성왕은 554년에 伽倻와 동맹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의 管山城(沃川)을 陷落시키고 進擊하였다. 처음 신라는 軍主(角

干) 于德과 伊滄 耽知가 苦戰하였으나 新州(廣州) 軍主 金武力의 裨將인 都刀의 공격을 받아 阿川(三年山城, 지금의 報恩)에서 백제의 성왕은 戰死 하였다.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眞興王 15년초에 그 戰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佐平四人, 士卒二萬九千六百人을 參획하고 한마리의 匹馬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北進政策은 咸鏡道 征服에도 주력하여 咸興 黃草嶺과 利原의 磨雲嶺까지 국토를 확대하였다. 이는 진흥왕의 巡狩碑(568년 건립)가 기록하고 있다.

開國 5年(진흥왕 16년, 555) 10월에는 친히 北漢山에 巡幸하여 疆域을 넓혀 정하였으며, 比斯伐(지금의 慶南 昌寧)에 完山州를 설치 하였다. 6년(556)에는 比列忽州(지금의 咸鏡南道 安邊)를 설치하여 成宗을 軍主로 임명하였다. 7년(557)에는 國原(지금의 忠州市)을 小京으로 삼았으며, 沙伐州를 폐지하고 甘文州(지금의 慶北 金川市 개령면 일대)를 설치하여 沙滄 起宗을 軍主로 삼았으며, 新州(州治는 廣州)를 改稱하여 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진흥왕 26년(565)에는 完山주를 폐지하고 大耶州(지금의 慶南 합천군 합천읍)를 설치하였다.

그 후 568년(진흥왕 29)에 와서 完山주를 폐지하고 南川州(지금의 慶北 利川市 지역)를 설치하였으며, 또 比列忽주를 폐하여 達忽州(지금의 江原道 高城 지역)를 설치 하였다. 이 해는 진흥왕 29년(568)으로 年號를 ‘太昌’이라고 고치던 해 였다.<sup>58)</sup> 주의 廢

58) 鄭求福 外 4人(共編), 『譯註 三國史記』, 2. 翻譯篇(城南: 韓國精神

置는 결코 영토의 退縮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만 行政上 혹은 軍事上 필요로 때를 따라 州治를 다른 곳으로 옮기어 州名을 고친 데 불과한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진흥왕은 國境을 巡狩하여 民心을 訪探하는 동시에 여러 곳에 巡狩管境碑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발견된 巡狩碑가 4基가 있다.<sup>59)</sup>

## 2. 西南方 開拓과 進出

진흥왕은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한 北方進出과 함께 西南方地域의 伽倻 征伐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六伽倻 등은 아직도 신라와 敵對的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가야는 554년 管山城 싸움 때 백제와 同盟하여 신라군을 공격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진흥왕은 가야와 백제동맹군을 擊破하고 555년에 昌寧地方에 不斯國(比子伐, 昌寧)을 병합하여 이 곳에 比子伐停을 두고 下州의 治所로 삼았다.

가야는 신라의 壓迫에 對抗하기 위하여 562년 7월에 백제가 신라의 邊境을 침략한 틈을 타서 9월에 신라에 반기를 들었으나 진흥왕은 伊滄 異斯夫에게 명하여 副將 斯多唵이 出兵하여 가야를 멸망 시키고 服屬 하였다.

『三國史記』, 권 제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23年條에는 가야 最後의 모습을 기록한 다음의 글이 실려있다.

9월에 가야가 背叛하므로 왕이 異斯夫에게 명해 討伐하게 하고, 斯多唵을 그 副將으로 삼았다. 斯多唵이 騎兵 5,000명

文化研究院, 1997), pp.82-83 참조.

59) 李丙燾, 『眞興大왕의 偉業』, 『韓國古代史 研究』(서울: 博英社, 1983), p.672.

을 거느리고 선두에서 치달려 梅檀門에 들어가 흰 깃발을 세우니, 온 城中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異斯夫가 軍士를 이끌고 도착하니 일시에 모두 降伏하였다. 戰功을 논함에 있어서 斯多舍이 으뜸이었다.<sup>60)</sup>

이로써 신라는 洛東江 全域을 확보하게 되어 漢江流域의 占領과 함께 半島의 中部, 南部를 차지하고 풍부한 人的, 物的 資源을 確保하게 되었다. 진흥왕의 이러한 國土擴張은 轉輪聖王의 國土觀 곧 天下統一, 佛國土完成이라는 그의 신념과 統治哲學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VI. 國史編纂과 音樂獎勵

진흥왕은 古代國家整備 그리고 확대된 영토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많은 文化政策을 施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내외정치제도의 정비, 그리고 國史의 編纂, 音樂의 정리와 佛敎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施策(八關會, 百高座講會, 寺刹建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정치에 관한 방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國史의 編纂과 音樂의 獎勵 및 巡狩碑建立 등에 관해서만 기술 하고자 한다.

---

60) 『三國史記』, 권 제4, 新羅本紀 제4, 眞興王 23年 9月. 加耶叛. 王命 異斯夫討之. 斯多舍副之. 斯多舍領五千騎先馳. 入梅檀門立白旗. 城中 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論功. 斯多舍爲最. 김부식(저), 이강래(역), 『삼국사기』, 1(서울: 한길사, 1998), p.126. 김부식(저), 김종권(역), 『완역 삼국사기』(서울: 광조출판사, 1974), p.66.

國史編纂은 진흥왕 6년에 伊滄 異斯夫가 奏請하여 着手하게 되었는데 『三國史記』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善惡을 기록하여 褒貶(포폄)<sup>61)</sup>을 萬代에 보이는 것이니, 이를 편찬하지 않으면 後代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 大阿滄 居 柒夫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國史를 편찬하게 하였다.<sup>62)</sup>

이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 최초의 歷史書를 編纂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전하지 않으니 그 상세한 내용과 체제를 알 수가 없다. 이를 보면 신라가 國史를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진정한 歷史와 正統性을 확립하고 國家體制와 制度를 鞏固히 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다.

『國史』의 편찬은 신라 사람들이 신라라는 나라의 존재를 滿天下에 들어내는 작업이었다. 특히 建國神話에 나오는 始祖와 왕을 배출한 家門과 그 세력들을 분명히 하여 국왕 중심의 역사를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3)</sup>

『三國遺事』를 보면 “왕이 風流를 좋아했다.”<sup>64)</sup> 는 기록이 있다.

---

61) 褒貶(포폄) :褒는 칭찬하는 것이요, 貶은 비판 한다는 뜻이다. 이는 孔子가 『春秋』를 지을 때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전통적인 동양의 역사 편찬에 있어서 史家들이 가장 중요시한 가치관 중의 하나였다. 정구복 외 4인, 『역주삼국사기』, 3. 주석편(상)(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112-113.

62) 정구복 외 4인,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80.

63) 이종욱, 『신라의 역사』, 1권, p.339.

64) 『三國遺事』, 3. 塔像 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이를 보면 진흥왕은 音樂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獎勵한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를 보면 진흥왕이 巡狩중에 于勒과 尼文을 불러서 音樂을 演奏하게하여 즐거워했으며,<sup>65)</sup> 우륵에게 명하여 法知, 階古, 萬德 3사람의 敎育을 맡아 하도록 하였음을 볼 때 왕이 音樂에 지대한 關心을 갖고 장려 하였던 것을 알 수 가 있다.

『三國史記』, 권 제32, 雜誌 1, 樂에는 于勒에게 音樂敎育을 받는 3인이 우륵에게서 11曲을 傳習하였으나, 그 곡이 煩雜하고 淫亂하여 邪正하지 못하다고 하여 5곡으로 만들었으며 우륵이 이를 듣고 노하였으나, 그 5곡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탄하기를, “즐거우나 節制하여 흘러내리지 않고, 애절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아 悲痛하지 않으니, 바른 音樂이라고 할 만하구나!”(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sup>66)</sup>하고 눈물을 흘리며 感歎하였다고 한다. 왕 앞에서 그 곡을 演奏하니 왕은 기뻐했으나 臣下들이 亡國 伽倻의 音樂은 취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이에 진흥왕은, “가야의 왕이 淫亂해서 自滅한 것이지 樂 자체에 무슨 罪가 있으랴, 대개 聖人이 樂을 制定함에 있어 사람의 情緒에 따라 적당히 調節하는 것이요, 나라의 治, 亂이 音調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여 이를 행하게 하므로 大樂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sup>67)</sup>

진흥왕의 이와 같은 音樂의 장려는 禮, 樂으로서 美風良俗을 바로잡고 民心을 純化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

65) 『三國史記』, 권 제4, 新羅本紀 4, 眞興王 12年.

66) 『三國史記』, 권 제32, 雜誌 1, 樂. 金富軾(著). 李康來(譯), 『三國史記』, p.631. 金富軾(著). 李康來(校勘), 『原本 三國史記』, p.360.

67) 『三國史記』, 권 제32, 雜誌 1, 樂. 金富軾(著). 李康來(譯), 『三國史記』, p.631.

이며, 또한 왕의 至極한 佛心으로 볼 때 佛敎에 관한 音樂도 장려 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 VII. 巡狩碑의 建立

진흥왕 巡狩碑는 왕의 領土擴張 政策에 隨伴하는 것으로서 征服地域의 住民들을 抱容하고 신라의 統治體制로 改編하면서 이를 記念하면서 세운 비이다. ‘巡狩’란 天子가 諸侯와 封地를 직접 순회 하면서 현지의 統治狀況을 보고받는 儀禮로 巡行이라고도 한다.

현재까지 4基의 비가 발견되었으며 昌寧碑, 北漢山碑, 黃草嶺碑, 磨雲嶺碑가 그것으로써, 이들 진흥왕 순수비는 그 당시의 官僚制度, 身分制度, 社會組織 등의 연구에 史料的인 價値를 전해주는 것으로 金石學的으로도 귀중한 文化, 學術的인 遺産인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진흥왕 순수비는 다음과 같다.<sup>68)</sup>

### 1. 昌寧碑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에 소재. 국보 제33호. 비석의 높이는 162cm, 너비 174cm, 두께 30-51cm, 花崗巖을 다듬어 楷書體의 글자를 새긴 것으로 글자의 크기는 고르지 않으나 대체로 4cm를 넘지 않는다. 건립연대는 진흥왕 22년(561) 이다. 이로 보아 그 이전에 신라가 비화가야(非火加耶 : 지금의 창녕)나

68) 李丙燾, “眞興大王的 偉業,” 『韓國古代史研究』(서울: 博英社, 1983), p.678 참조.

아라가야(阿羅加耶 : 지금의 함안)를 영향권에 넣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건립연월을 새긴 題記, 紀事, 진흥왕의 창녕 행차시에 모인 신하들을 열거한 수가인명(隨駕人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葛文王, 大等 등 중앙 귀족들을 비롯하여 領域 확보를 위한 前進基地의 軍司官인 四方軍主, 幢主, 村主 등이 나타나 당시 신라의 支配體制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 2. 北漢山碑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北漢山の 비봉 頂上에 있던 비. 국보 제3호. 화강암 비신의 높이는 154cm, 너비 69cm, 두께 16.7cm, 1972년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보관하고 있다. 1816년(조선 순조 16) 金石學者이자 書藝家인 秋史 金正 희에 의해 조사된 적이 있다. 蓋石을 엮은 형태이나 지금은 碑身만 남아있다. 모두 12행으로 각 행에 32자씩 楷書體의 글자를 새겼는데, 磨滅이 심해 判讀할 수 없는 글자가 많다.

碑文은 題記, 紀事, 隨駕人名, 詠辭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 “眞興太王과 衆臣이 巡狩管境했을 때 세웠다.”는 구절이 확인되며, 民心을 수습하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 褒賞을 내린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제기부분의 마멸로 인해 건립연대를 분명히 알 수 없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진흥왕은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지역을 탈취하고, 554년 管山城戰鬪에서 승리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후, 555년에 직접 北漢山州(지금의 서울)를 순행하여 ‘척정봉강(拓定封疆)’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문 중에 ‘南川軍主’가 나오므로 남천주가 설치된 568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

지만, 신라 주의 치폐관계는 문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없으므로 555년이 건립연대일 가능성이 높다.

### 3. 黃草嶺碑

함경남도 함흥군 황초령(지금의 함남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에 있던 비. 높이 92.4cm, 너비 45cm, 두께 20cm. 건립연대는 568년(진흥왕 29)이며, 비의 소재는 18세기부터 알려졌는데 秋史 金正喜에 의해 조사되기도 했다.

1852년(조선 철종 3) 관찰사 尹定鉉이 비를 고개 아래의 中嶺 鎭으로 옮기고 지명을 진흥리로 바꾸었다. 현재는 북한의 함흥역 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화강암을 잘 다듬은 비신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일부가 파손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12행으로 각 행에 35자의 해서체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비문의 구성은 제기, 기사, 수가인명으로 되어 있다. 제기에는 泰昌 元年인 568년에 眞興太王이 순수관경하고 비문을 새겼다는 내용이 있다.

기사부분은 儒敎的 政治思想에 입각하여 ‘제왕건호(帝王建號)’는 스스로 덕을 닦고 백성을 편안히 할 따름이며 진흥왕 자신이 태조의 基業을 이어 즉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수가인명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문도인(沙門道人)’, 즉 승려가 나타나는 점과, ‘이내종인(裏內從人)’, ‘집가인(執駕人)’, ‘약사(藥師)’, ‘당래객(堂來客)’, ‘이내객(裏內客)’ 등 국왕의 近侍集團으로 보이는 職名이 나타나는 점이다.

#### 4. 磨雲嶺碑

1929년에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의 운시산(雲施山)에서 발견된 비. 비신의 높이는 165cm, 너비 65cm, 두께 약 30cm. 건립연대는 568년(진흥왕 29)이다. 검은색을 띤 화강암을 다듬어 양면에 글자를 새겼다. 앞면 10행에는 각 행에 26자, 뒷면 8행에는 각 행에 25자를 새겼다. 비문의 구성은 제기, 기사, 수가인명으로 되어 있다. 제기에는 泰昌 元년에 眞興太王이 巡狩했을 때 세운 것임을 밝혔다. 紀事부분은 대체로 황초령비와 같으며, 隨駕人名도 황초령비와 대략 같으나 缺字가 적어 황초령비의 缺落부를 補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황초령비에 보이는 職名 외에도 ‘급벌참전(及伐斬典)’, ‘내부통전(奈夫通典)’, ‘외객(外客)’ 등의 직명이 보이는 것은 당시 국왕의 近侍組織을 아는 데 참고가 된다.

진흥왕순수비의 건립 위치는 당시 신라의 영토와 그 경계지역을 알려줄 뿐 만 아니라, 비문 중에 나오는 ‘짐(朕)’, ‘제왕건호(帝王建號)’ 등의 용어는 신라의 당당한 自尊意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거 일본인들은 磨雲嶺碑와 黃草嶺碑가 고려시대 윤관(尹瓘)장군의 9성 築造 때나 조선 초기의 北方開拓 때 원래 위치에서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견해이다.

고려 고종 때의 승려 天因의 『孤石亭記』에서 진흥왕의 비석이 철원 남쪽 30리 지점인 고석정 부근에 있었다고 언급한 것도 진흥왕의 또 다른 비가 철원 근방에 있었을 가능성을 말할 뿐 비가 옮겨졌다는 견해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진흥왕대에는 활발한 영토확장과 함께 많은 비가 세워졌는데 『新羅丹陽赤城碑』도 그 중 하나이다. 또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신라 官職과 왕의 近侍集團의 職名이 새겨진 비석이 조선 숙종 때 지금의 東萊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진흥왕의 또 다른 순수비일 가능성이 있다.

巡狩碑에 새겨진 人名 記錄에는 僧侶, 中央官僚, 地方軍官僚, 地方官僚, 侍從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진흥왕시대의 佛教의 권위와 그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 行政官 곧 大等이 一律적으로 銘記되어 있는 것은 아직 官僚制度가 未分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黃草嶺碑와 磨雲嶺碑의 수행관원을 職名 別로 보면, 沙門道人, 大等, 駕人, 裏內從人, 卣人, 藥師, 奈夫通典, 及伐斬典, 堂來客, 裏來客, 外客, 助人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당시 官制의 高下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들 비의 특징으로는 侍從한 인원이 특별히 많다는 점이다.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 咸鏡道地域에 靺鞨族과 濊族이 居住했던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 軍政官이나 行政官의 支配組織 誇示보다 오히려 侍從들에 의한 왕의 權威를 표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이유로 보여진다. 그러나 昌寧碑에는 中央官僚職의 隨行員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伽倻地方에서는 지방에서의 強壓的인 왕권표시보다 정치제도의 과시가 유리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방의 軍政은 四方軍主를 중심으로한 것이 보인다. 561년에 설치된 四方軍主는 慶尙道 昌寧에 있었던 比子伐軍主, 慶尙道 開寧에 둔 甘文軍主, 京畿道 廣州에 있었던 漢城軍主, 咸鏡道 安邊에 있었던 碑利城軍主로서 지방 征服地域을 다스렸다.

그리고 磨雲嶺碑文에 “帝王建號, 莫不修己以安百姓”이라는 文句가 있어 그 당시 儒敎思想의 “修己治人”과 통하고, 北漢山碑, 黃草嶺碑에서 “忠信情誠”, “爲國盡節”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指導階層이 일반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盡忠報國과 忠信節義를 장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순수비 4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官職	碑名	昌寧碑 (561)	北漢山碑 (561-568?)	黃草嶺碑 (568)	磨雲嶺碑 (568)	合
僧侶		0	0	2	2	4
中央臣僚		25	3	7	7	42
地方軍臣僚		5	1	0	0	6
地方臣僚		8	0	0	0	8
侍從		2	0	9	13	24
不明		0	3	0	0	3
合計		40	7	18	22	87

## VIII. 結 言

신라의 24대 英主 眞興王은 신라 992년의 역사에서 가장 英雄的인 君主였다고 할 수 있다. 왕의 在位 37년간 강력한 專制王權을 확립하고 國家行政과 국가의 制度를 整備, 新設하여 三韓一統을 위한 國力を 強健하게 構築 하였던 것이다.

眞興왕은 신라사회를 氏族社會의 遺制에서 脫皮하여 반듯한 국가의 面貌를 日新하기 위하여 수 많은 統治業績을 實行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교사상을 통치의 철학으로 수용하여 轉輪聖王이 되고자 한 것이다.

佛國土思想을 具現하고 國土擴張을 통한 雄大한 나라를 세우고 巨大한 雄志와 野望을 실현하고자 국가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1부>에 이어서 <2부>로 진행된 것으로, 眞興왕의 統治哲學과 그 業績을 王權의 確立과 骨品制度, 僧侶職責制度, 佛國土思想의 具現, 花郎道の 再創立과 中興, 國土擴張事業, 國史의 編纂, 音樂의 整理와 獎勵, 巡狩碑의 建立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要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眞興王은 선대인 法興王 때에 公認된 불교를 적극 수용하여 國家佛敎로 삼고자 하였다. 그 자신도 이름을 ‘沙彌’ 또는 僧侶를 뜻하는 ‘三麥’이라고 하고 王子들에게는 銅輪, 金輪, 舍輪 등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 왕이 率先하여 불교적인 이름을 지어 쓴 것은 王室을 불교로서 神聖化하고 骨品制度를 정하여 差別化된 개념을 定立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印度의 王族階級인 刹帝利種의 眞種과 같이 神聖한 血統으로 표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불교를 國教化 함으로써 寺刹이 건립되고 僧侶가 늘어나자 승려에게 官職을 除授하는 僧職制度(僧官制)를 施行하였다. 승려의 직책제도는 中央에는 大書省, 少書省과 都唯那娘 두고 地方에는 州統과 群統을 두어 行政組織으로 體系化 하였다. 이는 불교의 弘布 및 振興과 승려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다. 진흥왕은 靑少年教育和 국가적인 人材養成을 위하여 花郎道를 再創立, 中興 하였다. 이미 先代인 法興王 때에 少女를 뽑아 原花制度를 시행하였으나 실패 하였으므로, 진흥왕대에 와서는 良家の 少年들을 뽑아서 花郎制度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花郎道를 통하여 뒷날 신라의 국가적 인재의 대부분이 輩出되었다. 곧 後代의 三韓一統의 統一主導勢力으로 活躍하는 인재가 모두 花郎徒들 이었던 것이다.

라, 진흥왕은 佛國土思想을 具現하기 위하여 正法國家思想, 國家鎮護思想을 바탕으로 百高座法會, 八關法會 등을 개최하였다. 佛事를 勸獎하여 興輪寺를 완공하고, 백성들이 出家하여 僧尼가 되는 것을 허락 하였으며, 국가 護國佛敎의 總本山인 大刹 皇龍寺를 건립하고 丈六尊像을 鑄造하여 奉安 하였다.

마. 진흥왕은 正法國家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하여 國土擴張 사업에 盡力を 다하여 拍車를 가하였다. 隣接한 伽倻, 高句麗, 百濟와 和戰兩面 전략으로 外交的, 軍事的인 同盟과 征服戰爭을 거듭

하면서 국토를 확장하였다.

바. 진흥왕은 伊滄 異斯夫의 奏請에 따라 大阿滄 居柒夫에게 명하여 여러 선비들을 모아서 國史를 編纂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라의 歷史와 국가의 正統性을 定立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사. 진흥왕은 伽倻의 遺民인 伽倻琴의 名人 于勒과 그의 제자인 尼文을 불러 음악을 듣고, 階古, 法知, 萬德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하여 演奏와 노래와 춤을 관람하였다. 왕이 음악을 獎勵, 整理하도록 한 것은 禮樂을 勸獎하여 美風良俗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慰撫하며 정서순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아. 진흥왕은 佛國土思想을 구현하기 위하여 國土擴張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된 국토를 직접 巡幸하여 軍士와 百姓을 慰撫, 褒賞하였으며, 각 지역에 巡狩碑(拓境碑)의 건립하여 統治의 哲學과 相關사항을 石碑에 기록 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순수비는 昌寧, 北漢山, 磨雲嶺, 黃草嶺 등에 세웠던 4기의 石碑가 남아서 전해 오고 있다.

논문투고일 : 2011.11.29

심사완료일 : 2011.12.18

게재확정일 : 2011.12.25

## ■ 참고문헌 ■

『稜伽經』

『彌勒上生經』

『彌勒下生經』

『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阿含經』

『仁王般若波羅蜜經』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三國遺事』

『三國史記』

『纂古圖』

金大問(著).李泰吉(譯), 『花郎世紀』, 釜山: 民族文化, 1990.

金大問(著). 李鍾旭(譯註解), 『花郎世紀』, 서울: 소나무, 1999.

金東華, 『佛教의 護國思想』, 서울: 佛教新聞社 出版局, 1976.

金東華, 『三國時代의 佛教思想』, 서울: 民族文化社, 1987.

金戊祚, 『韓國神話의 原型』, 서울: 正音文化社 1988.

김민수 외 3인(편),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1.

金富軾(著), 金鍾權(譯), 『三國史記』, 서울: 廣曹出版社, 1974.

金富軾(著), 李康來(譯), 『三國史記』, 1.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8.

金富軾(著), 李康來(譯), 『三國史記』, 2.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7.

金富軾(著), 李康來(校勘), 『三國史記』, 原本,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3.

金庠基,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金煥泰, 『新羅佛教研究』, 서울: 民族文化社, 1987.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編), 『統一期의 新羅社會 研究』, 發行處: 慶尙北道, 1987.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編), 『新羅研究論著目錄』, 서울: 東國大

- 學校 出版部, 1993.
- 東亞出版社 編輯部(編),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16卷. 19卷. 26卷, 서울: 東亞出版社, 1883.
-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朝鮮古代研究』, 第1部 東京 三省堂, 1943.
- 三品彰英(著). 李元浩(譯), 『新羅花郎의 研究』, 서울: 集文堂, 1995.
- 孫仁鈇, 『韓國人과 教育思想』, 教壇叢書. 1, 서울: 教壇社, 1969.
- 孫仁鈇, 『新羅 花郎道の 空間』, 서울: 문음사, 1996.
- 新羅文化宣揚會(編), 『新羅思想의 再照明』,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12輯, 慶州: 新羅文化宣揚會, 1991.
- 梁槿錫, 『韓民族과 花郎道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서울: 畱學社, 1985.
- 梁槿錫(編), 『韓國思想과 倫理』, 서울: 螢雪出版社, 1990.
- 梁槿錫, “花郎道の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論文集』, 제6집, 釜山: 盛智工業專門大學, 1984.
- 오일환, “국가보훈과 국가정체성,” 『민족사상』, 제5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 禹貞相. 金煥泰(共著), 『韓國佛教史』, 서울: 信興出版社, 1976.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1984.
-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서울: 乙酉文化社, 1959.
- 李丙燾(譯註), 『三國遺事』, 서울: 廣喜出版社, 1975.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博英社, 1983.
- 李瑄根, 『花郎道 研究』, 서울: 東國文化社, 1954.
- 李瑄根, 『花郎道』, 嶺大教養文庫. 1, 大邱: 螢雪出版社, 1971.
- 李瑄根, 『花郎道와 三國統一』, 教養國史叢書. 6, 서울: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74.
- 李崇寧, 『새國語大辭典』, 서울: 韓國圖書出版中央會, 1996.
-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2.
- 李鍾旭, 『花郎世紀』, -新羅人の 新羅 이야기-,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

- 李鍾旭, 『花郎世紀로 본 新羅人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0.
- 李鍾旭, 『新羅의 歷史』. 1, 서울: 김영사, 2002.
- 李鍾旭, 『新羅의 歷史』. 2, 서울: 김영사, 2002.
-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서울: 三榮出版社, 1984.
- 一然(著), 金奉斗(編譯), 『三國遺事』, 서울: 敎文社, 1993.
- 一然(著). 李載浩(譯), 『三國遺事』, 서울: 솔출판사, 1997.
- 一然(著). 李家源. 허경진(譯), 『三國遺事』, 서울: 한길사, 2008.
- 張三植(編,) 『大漢韓辭典』, 서울: 省文社, 1974.
- 章輝玉, 『海東高僧傳』, 서울: 民族社, 1994.
- 정경환,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5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 정경환·이정화, “풍류도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4권 제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0.
- 정경환, “한국정치사상의 성격과 과제,” 『민족사상』, 창간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07.
- 鄭求福 外 4人(共編), 『譯註 三國史記』, 1. 勘校 原文篇, 國譯叢書 96-1,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鄭求福 外 4人(共編), 『譯註 三國史記』, 2. 翻譯篇, 國譯叢書 96-2,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鄭求福 外 4人(共編), 『譯註 三國史記』, 3. 註釋篇(上), 國譯叢書 96-3,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鄭求福 外 4人(共編), 『譯註 三國史記』, 4. 註釋篇(下), 國譯叢書 96-4,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정천구, “마음과 세계,” 『민족사상』, 제2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08.
- 정천구, “불교와 한국의 국가,” 『민족사상』, 제3권 제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09.
- 趙明基,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서울: 新太陽社 出版局, 1962.

조수동, “전륜성왕의 정치이념과 평화,” 『민족사상』, 제5권 제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新羅花郎 研究』, 精神文化文庫. 22, 서울: 高麗苑, 1992.

韓國鄉土史研究 全國協議會(編), 『新羅花郎의 新研究』, 도서출판 문덕사, 1995.

弘法院 編輯部(編), 『佛敎學大辭典』, 서울: 弘法院, 1996.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서울: 一志社, 1978.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74.

## <Abstract>

### A Study on the Ruling Philosophy of King *Jinheung*(眞興王) of Silla(新羅)

Yang Keun-Suk(Dongbang GraduateUniversity)

This thesis attends to analyse the ruling philosophy *Jinheung* of Silla. King *Jinheung* of Silla is a great and heroic king from history of Silla. During his 37-year rule, he established an absolute authority of the king and modified a national administration, ruling regulations. With this systematic organizing, he fortified a national power for unification of Samhan(三韓統一). He rendered services to his's country in his life for sake of the realization of Gukkajinho(國家鎮護, to keeping a state with a buddist laws) thought and Bulkukto(佛國土) thought. To do this, he executed a Baekgojabuphe(百高座法會) and Palguanjaehe(八關齋會). Also, he revived a Hawrangdo(花郎道) for a the education of the young and national cultivating men of ability. Through this Hawrangdo, the after Silla produced most young talents. The persons moving in Samhaniltong(三韓一統) are almost from the Hawrangdo. According to this situation, I think that the various ruling organization of King *Jinheung* provides the foundation of the unified Silla.

**Key words** : King *Jinheung* , Sunsoobee(巡狩碑), Bulkukto thought(佛國土思想), Hawrangdo(花郎道), Samhaniltong(三韓一統), Golpoom institution(骨品制度)